

월요논단



남 동 우 /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에비씨 해군 준장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개봉에 즈음해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린다. 이순신 제독의 연합함대는 동년 5-6월 2차례 출전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중에 일본군이 수륙 합동으로 전라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제3차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벌어진 해전이 한산대첩이다. 영화에서도 잘 묘사된 바와 같이 견내량에 전개 중인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작전과 유인한 일본 함대를 포위 공격하기 위한 학익진 전법이 돋보이는 해전이였다. 일본 수군은 이 해전을 계기로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금지하고, 해안 지역에 왜성을 쌓고 주둔하면서 부산과 쓰시마, 본토를 잇는 병참선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조선 수군은 한산대첩을 통해 일본 수군의 전라도 해역 진출을 차단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뤄 낸 것이다. 해전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승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을 통해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순신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원인으로 군선(판옥선, 거북선 등)의 우수성과 각종 총통 등 화기의 성능, 그리고 일본 수군보다 앞선 전략전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일본 함대의 지휘관이었던 와키사카 야스하루의 지나친 자신감과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는 경솔함을 들 수도 있겠다. 현대적 의미의 용어로 이를 다시 표현해 본다면 지휘관의 리더십, 전비태세(전력 건설, 교육 & 훈련 등) 및 장병들의 강한 정신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 시일 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와 유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휘관의 리더십과 전비태세는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을까? 그리고, 장병들의 정신력은 개인의 생사를 떠나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무장되어져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전개 중인 제7기동전단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관 건물은 학익진 형상을 설계에 반영해 건축됐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로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보여 지는 형상이 아니라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용 이순신 제독의 한산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지난 7월 개봉돼 절찬리에 상영 중이다. 영화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724만 명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으며, 2014년 7월에 개봉해 누적 관객 수 1761만명을 기록한 영화 '명량'의 뒤를 이어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산대첩은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생 이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진주대첩,

열린마당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이 민 희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요한 것이 초기 진압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30.3%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며, 사망자 또한 주택화재에서 75%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시행한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와 주택화재 사망자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 설치를 분석을 통한 시책 추진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한 번 설치하면 수년 동안 내 집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아직도 미룰 것인가?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 시기에 화재 발생은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화재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

뉴스-in

“마지막까지 사전대비에 철저 기하겠다”

동부권 부동산중개업 점검

○...제주시가 10월 28일까지 이도2동, 아라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17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 질서 문란 행위,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올 상반기 서부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7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부과 18건, 형사고발·수사의뢰 7건 등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 전선회기자

이종우 시장 태풍 대비 점검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8일 동부지역 재해위험지구 사업장과 상습침수지역 등을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 남산1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장 등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장 3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성산읍 오소리, 시흥리 지역을 찾아 태풍 내습에 따른 사전대비 태세를 살피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등을 점검. 이 시장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당부. 백귀탁기자

사설

쉽게 손대는 마약, 더 이상 확산 안된다

마약이 우리의 일상속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가 쉽게 이뤄지면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 마약사범도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손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 청정지대로 여겨졌던 제주에서도 마약사범 검거가 크게 늘어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투약자·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7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30명보다 150% 늘어난 것이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이 57명(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가 14명(18.7%), 옥시코

돈·펜타닐 등 마약류 4명(5.3%) 등이다. 나이대별로 보면 40대가 23명(30.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 20대 21명(28%), 30대 17명(22.7%), 50대 14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큰일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하는 마약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한번의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마약류를 접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약에 한번 빠지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게 중독자들의 경고다. 오죽하면 마약은 죽어야 끊어지는 것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특히 마약 수반 중에는 10대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이 더 이상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옛 탐라대 활용, '해법' 더 미룰 수 없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도가 부지 매입 6년이란 오랜 시간 답보상태에서 오연훈 도정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용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그간 지역주민·도의회를 중심으로 조기 활용방안 결정을 촉구해 온 현실에서 이번엔 제대로된 해법을 내야 할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오 도지사가 최근 탐라대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이다. 오 도지사는 일부러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회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탐라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지사는 이날 탐라대 활용방안 기본원칙으로 제주이익 부합, 미래성장 기여, 주민수용성 제고를 들었다. 이 기준은 제주청정가치를 지키면서 미래발전 동력으로써의 역할, 주민의견 반영을 최우선했다는 점에서 도

민 공감엔 문제없다는 평가다. 도민 우려는 이번에도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간 활용방안은 수 없이 나왔지만 성과를 못보여서다. 여대껏 외국대학 유치, 제주연원 운영을 통한 교육연수단지 문화체육단지 수목원 활용, 도의회 지방의정연수원 제안 등 모두 수포로 돌아간 전례가 있다. 지역주민·도의회는 조기 결정 입장과 달리 도에선 신중론 견지로 '답보'를 면치 못한 원인으로 제기된다. 도가 415억원이란 큰 돈을 들여 매입했고, 매년 유지관리 비용 등도 1억원 내외로 지출하는 현실서 활용방안을 더 미룰 수 없다. 오 지사가 교육기관만이 아닌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유력기업 이전 등 구체적 방안을 시한 만큼 조기 해법에 전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송성훈(前 중등교원) 아버지 여산 송공 영관(前 중등교원·향년 91세)께서 서거 2022년 9월 17일 20시 41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19일(월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20일(화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가족묘지 선영 (구좌읍 상도리 1040) 아 들 송성훈 며느리 양효순 종훈 이순정 철훈 선광덕 경훈 문갑순 맹훈 장유경 딸 송수자 사 위 임영근 ※ 연락처 : 송성훈 010-3696-5541 임영근 010-6789-0104

부 고 강남훈(자영업) 어머니 김해김씨 정석(향년 90세)께서 서거 2022년 9월 17일 18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20일(화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21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모솔도 선영 아 들 강 남 훈 며느리 김 선 미 남철 김 문 이 딸 강 향 림 사 위 이 창 림 경희 이 영 옥 승희 박 순 태 의정 고 성 우 은 이 손 강 은 형 정 수 ※ 연락처 : 강남훈 010-6811-8636 강남철 010-3897-0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들 김동연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19일 부 김 민 중 모 강 경 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원주번씨 순희(향년 9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19일 아 들 양 동 우 며느리 문 신 훈 딸 양 영 순 경희 강 덕 부 경민 문 창 완 경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식식품의약품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